

팔라스마 건축 현상학의 배경과 특성*

A Study on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Pallasmaa's Architectural Phenomenology

Author 정태용 Chung, Tae-Yong/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Pallasmaa's architectural phenomenology. As a prominent architect, educator and phenomenologist, Pallasmaa criticizes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that has been commercialized and intended to addict superficial images. He suggests the restoration of essentials of architecture related to human existence. His architectural phenomenology shows a solution to problem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through focusing on architectural experiences. Pallasmaa argues 'multi-sensory architecture' to criticize architecture based on visual image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actile sense for architectural experiences. His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has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bridge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but also has limits in depth rather than width of theory. Pallasmaa believes that the essence of architecture can be explained as existential activities to maintain existence of our lived space.

Keywords 팔라스마, 건축 현상학, 다감각적 건축
Pallasmaa, Architectural Phenomenology, Multi-sensory Architectur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후기 자본주의 체제 하의 현대 건축은 이전과는 달리 양과 질적인 차원 모두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 테리다 및 들뢰즈를 중심으로 프랑스 현대철학의 다양한 개념이 건축에 도입되었고, 시각적 이미지 중심의 건축 상업화 현상도 급속히 나타났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급부로 건축의 본질, 경험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는, 이른바 건축 현상학 혹은 현상학적 건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건축 현상학은 건축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계의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후아니 팔라스마(Juhani Pallasmaa)는 핀란드의 건축가이자 이론가로서 다수의 저작물과 강연을 통하여 건축 현상학의 필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있다. 그가 제기하는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현상학적 건축 담론들은 건축 현상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팔라스마 건축 현상학의 배경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그의 주장과 이론을 고찰하여 현대 건축이 당면한 문제점을 재고하고, 더 나아가 건축의 본질에 대한 사고와 진정한 건축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팔라스마의 저작에 나타난 건축 현상학의 내용이지만, 연구의 깊이와 정확성을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사회적, 건축적 배경까지로 연구범위를 확대한다. 즉, 팔라스마의 초기 저작부터 현재까지의 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만, 이와 아울러 팔라스마의 주요 주장의 배경이 되는 철학자와 건축가의 작업도 포함시킨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건축 현상학의 계보를 간략히 고찰하고, 그 계열을 나누어 봄으로써, 건축 현상학에 있어서 팔라스마의 위치와 입장을 정리한다. 다른 한편, 건축 현상학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통하여 현대건축에 대한 팔라스마의 문제점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현상학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특히, 그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특성을 고찰해봄으로써, 팔라스마의 현상학적 접근

* 이 논문은 2014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방식이 갖는 장점과 의의 그리고 오늘날 건축계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2. 건축 현상학의 전개

2.1. 건축 현상학의 주요 이론

(1) 현상학과 건축

현상학은 훗설(Edmund Husserl, 1859-1938)에 의해 주창되었는데, 훗설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여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데카르트 철학 즉, 중립적 객관주의와 과학적 추상성에 반대하고, 대신 “사물로의 회귀(return to things)”를 주장했다. 그래서 훗설의 현상학은 현상에 대한 ‘순수한 바라 봄’ 혹은 ‘자체의 본질을 바라 봄’을 의미한다. 이러한 훗설의 현상학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에 의해 획기적인 전환을 맞는다. 훗설이 현상학의 필수 요소로 의식을 강조한 반면, 하이데거는 시간과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그가 강조한 인간의 존재 근거로서 ‘거주 개념’은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현상학은 세상의 이해에 있어서 ‘몸을 통한 지각(perception)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현상학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했다.

현상학적 접근의 중심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위, 경험, 의미를 서술적이고 해석적인 방식으로 조사함으로써, 인간 삶의 질과 물질 세상 간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고 인간 경험과 존재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다.¹⁾ 그런데, 건축은 인간 삶의 배경인 동시에 삶의 질에 관계하여, 물질 세상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즉 인간 경험의 많은 부분은 건축에서 일어나고,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역시 건물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배경으로 삼기 때문에 현상학과 건축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더욱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이전의 건축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시설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이는 당대 건축물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이었다. 그러나 근대 건축에 의해 고전 건축의 이러한 역할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건축 고유의 본질적 의미 역시 무시되었다. 그러나 근대건축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과거 건축의 가치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졌으며, 현상학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축에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건축 현상학의 주요 이론

1950년대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는 ‘공간’의 시학 (The Poetics of Space, 1958)에서 다양한 비유와 상징으로 현상학적 내용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건축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970년대 노베르크-슐츠(Christian Norberg-Schulz, 1926-2000)는 다양한 저작을 통해 현상학을 본격적으로 건축에 도입했고, 영국 에섹스 대학에서는 베슬리(Dalibor Vesely) 및 라이쿼트(Joseph Rykwert) 교수에 의해, 건축의 형성방식과 지각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연구되었는데, 그 결과 리더배로우(David Leatherbarrow), 페레스-고메즈(Alberto Pérez-Gómez) 등 이론가와 리베스킨트 등 건축가가 배출되었다.

1980년대 건축 현상학은 노베르크-슐츠의 장소론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건축 등 포스트모던 건축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로 전 세계에 걸쳐 주목을 받았다.

1990년대에는 팔라스마, 스티븐 홀을 중심으로 메를로-퐁티의 지각 중시의 현상학이 본격적으로 건축에 도입되었다. 한편, 데이비드 시먼(David Seamon)은 캔사스 주립대학 건축과 교수이자 환경-행태 전문가로서, 인간, 장소, 환경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해왔다.²⁾

2000년대에는 오테로-파일로스(Otero-Pailos)가 건축 현상학의 등장과 전개과정을 추적하여 포스트모던 건축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노베르크-슐츠와 케네스 프램턴 비판을 통하여 현대 건축에 있어서 건축 현상학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쉬라지(Reza Schirazi)는 명확한 현상학적 접근방식을 제안하며, 노우드(Bryan Norwood)는 메를로-퐁티와 들뢰즈의 의식 개념 비교를 통해 건축 현상학의 또 다른 가능성을 시도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건축에서 현상학적 접근은 이론가들에게 따라 각기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건축 현상학 관련 주요 이론가의 저서 및 내용

저자명	주요 저서 및 내용
Norberg-Schulz	‘실존, 공간, 건축(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1971)’, ‘지니어사 로사이(Genius Loci, 1980), 하이데거의 ‘거주 개념’ 도입으로 ‘장소의 건축’ 주장, 지역 문화와 장소 회복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공
David Seamon	‘주거, 장소, 환경(Dwelling, Place, and Environment, 1985)’, 환경, 장소, 거주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Perez-Gomes	‘건축과 근대과학의 위기(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1985)’, ‘지각의 의문(Questions of Perception, 1994)’, 건축의 형성, 지각 방식 및 시적 차원의 건축 강조
David Leatherbarrow	‘풍화에 대하여(On Weathering: The Life of Buildings in Time, 1993)’ 건축의 형성과정, 지각되는 방식, 지형이 미치는 영향 등 연구
Juhani Pallasmaa	‘건축과 감각(The Eyes of the Skin, 1995)’, 현대건축의 상업화와 이미지 중심 상황에 대한 비판. 촉각 중심의 다감각적 지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강조
Otero-Pailos	‘건축의 역사적 전환(Architecture’s Historical Turn: Phenomenology and the rise of Postmodern, 2010)’ 건축 현상학 도입과 전개과정 추적, 포스트모던과의 관계를 통한 한계 지적, 노베르크-슐츠와 프램턴 비판
Reza Shirazi	‘건축의 명확한 현상학적 해석을 향하여(Towards an Articulated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e, 2014)’ 건축 현상학의 기반과 전개, 현 상황, 안도 타다오의 작품 해석

2.2. 건축 현상학의 주요 경향

(1) 하이데거 계열의 건축 현상학

2) 특히 그가 주관하는 EAP (Environmental & Architectural Phenomenology Newsletter)를 통하여 레자 쉬라지(Reza Shirazi) 등 신진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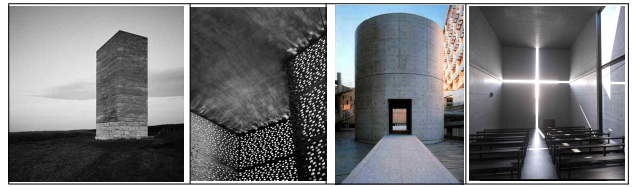
1) David Seamon, A Way of Seeing People and Place: Phenomenology in Environment-Behavior Research. In S. Wapner, J. Demick, T. Yamamoto, and H. Minami, eds., Theoretical Perspectives in Environment-Behavior Research. Plenum, 2000, p.3

건축에서 현상학적 사고의 발전은 전적으로 ‘시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경험’을 중시한 하이데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이데거는 에세이, ‘짓기, 거주하기, 생각하기 (Building, Dwelling and Thinking, 1951)’를 통하여 ‘거주가 개념적으로 존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³⁾ 그에 의하면 삶의 근본 목적은 거주이고,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함도 거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하이데거의 ‘거주의 현상’ 개념은 현상학이 철학적 중요성을 갖는 전환점으로 작용했다.⁴⁾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비록 하이데거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건축을 존재의 본질로 언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건축에 도입되어 건축 이론과 실무 모두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건축 현상학의 중심으로 만든 사람은 노베르크-슐츠이다. 그는 현상학을 근대 건축운동의 비판 도구로서 사용했고, 더 나아가 ‘장소의 건축’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⁵⁾ 즉 근대건축의 추상화와 관념성에 반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상학의 “사물로의 회귀” 개념을 건축에 도입했다. 특히 로마 시대의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 개념을 사용하여, 건축에 있어서 장소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렇듯, 노베르크-슐츠는 하이데거의 거주 개념을 도입하여 실존적 차원에서 건축을 바라보게 하였고, ‘Genius Loci’ 개념을 통하여 도시, 광역, 건물 군 차원의 접근방법 역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노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은 근대건축에 의해 파괴된 지역과 전통의 건축문화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래로 활발히 사용되었다. 한편, 디스-이벤센(Thomas Thiis-Evensen)은 자신의 책 ‘건축의 원형(Archetypes in Architecture, 1987)’을 통해, 원형에 간직된 내 외부 공간의 상호작용과 시간과 장소를 뛰어 넘은 건축 경험의 공통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건축 현상학의 전개에 기여했다.

하이데거 계열로 분류되는 건축가들은 노베르크-슐츠가 주장하는 장소성 이론에 공감하고, 건축의 본질과 존재를 중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건축 작업에 있어서 의미와 정체성에 관련된 장소를 강조하고, 감각, 지각, 시간 및 물성 탐험을 통해 건조 환경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인 ‘사물의 본질(thingness)’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의 건축은 공통적으로 중심성이 강하고, 재료의 물성에 주목하며, 건물의 구축성과 디테일을 강조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건물이 강직하고 묵직하며 단순한 면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계열의 대표적 건축가로는 페터 쉼토르와 안도 타다오를 들 수 있다.



<그림 1> 하이데거 계열의 페터 쉼토르, 브루더 클라우스 체플, 콜롬바 뮤지엄 내부, 안도 타다오 명상의 공간, 빛의 교회 내부

(2) 메를로-퐁티 계열의 건축 현상학

메를로-퐁티는 하이데거와 달리 인간 존재의 기본 경험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현상학을 발전시켰다. 그에 따르면, 현상학의 주요 발전은 ‘세계 혹은 이성의 개념에 있어서 극도의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통합한 것’⁶⁾에 있다. 메를로-퐁티는 현상학을 통하여 합리주의나 이상적 지성주의(intellectualism) 및 경험주의, 행태주의 모두를 반대하였다. 대신, 그는 세상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해에 있어서도 지각(perception)의 기본적 역할을 강조했다.⁷⁾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인간의 몸을 경험 세계의 중심에 둔다. 그러므로 감각적 경험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자 구성 그 자체인 몸을 통하여 통합된다.⁸⁾ 그리고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시각적 측면 이외의 다감각적 지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각의 현상학(1962)’과 유교집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1989)’은 철학뿐만 아니라 건축 현상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특히 팔라스마의 건축 현상학 이론과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팔라스마는 하이데거보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이 건축에 있어서 좀 더 창조적이며, 생성적 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팔라스마는 감각의 경험이 신체를 통해 통합되고, 세상과 사건은 서로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면서 다시 정의된다고 선언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특정 장소를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경험해왔기 때문이다.⁹⁾ 팔라스마의 건축 현상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른바 ‘다감각 건축’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건축에 팽배한 ‘시각 지배의 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별 건물에 적용 가능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제

3) Laura Clark Wagner, Some Limits of Phenomenology in Architecture Fall 2009, p.1

4) Norberg-schulz,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1980, p.10

5) Ibid. p.5 "장소의 특정한 성격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공간에 거주하게 하고 이러한 특정 영역 내에서 건축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영역을 조성했다."

6) Reza Shirazi, Towards an Articulated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e, Routledge, 2014, p.29

7) '나의 지각은 그러므로, 시각적, 촉각적, 들을 수 있는 것들의 합이 아니다; 나는 나의 전체로서 종합적인 방법으로 지각한다. 나는 한번에 나의 모든 감각에 대하여 말하는 사물의 독특한 구조, 존재의 독특한 방식을 파악한다.'

8)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Wiley, 1996, p.40

9) Reza Shirazi, architectural Theory and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Phenomenology, Brandenburgischen Technischen Universität, 2009, p.103

시했다. 그 결과 팔라스마의 건축 현상학은 ‘디지털 이미지’와 현학적 개념으로 포장된 현대 건축에 있어서 하나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대체로 메를로-퐁티 계열의 건축가들은 다감각적 지각을 강조하고, 빛과 색채에 있어서 과감하며, 다시점의 변화를 갖는 감성적인 디자인 면모를 보인다. 예를 들어, 알바루 시자는 오랜 기간의 작품 활동을 통하여, 포르투갈 지역의 풍토 건축과 근대 건축의 합리성을 결합시켜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곡선과 사선을 과감하게 적용함으로써 좀 더 자유로운 공간 구성을 실험적으로 시도하여 빛과 공간을 ‘시적(poetic)’¹⁰으로 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펜(Sverre Fehn, 1924-2009)은 노르웨이 출신으로서 재료와 빛 그리고 구조를 통합하여 구축(tectonic)의 시적(poetic)인 토대를 제공했다. 스티븐 홀은 이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로서, 1980년대 중반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접한 이후, 다양한 건축 개념을 그의 현상학에서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건축 접근 방법으로 발전시켜 사용하였다.¹¹ 특히 공간, 재료, 빛, 색채를 감각적으로 결합한 작품¹²을 시도했다. 메를로-퐁티 계열의 건축은 지각에 근거한 감각적 디자인으로 하이데거 계열 보다 부드럽고, 경쾌하며, 밝고 변화감이 많은 건축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2>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스페르 펜, 노르딕 파빌리온, 헤드마크 성당 박물관, 알바루 시자, 카마르구 재단 박물관, 미메시스 박물관 내부, 스티븐 홀, 아이오와 미술대학 신관, 넬슨-앳킨스 뮤지엄

이상 건축 현상학을 대표하는 두 계열이 갖는 특성들을 이론가, 이론 내용, 건축가 및 주요 건축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 건축에서 ‘시적(poetic)’이란 제작행위와 감성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제작행위’는 구축의 방식과 존재의 측면에서 그리고 ‘감성적’은 공간, 빛, 색 등이 결합되어 감각에 자극을 주는 내용으로 건축 현상학과 관련을 맺는다.
- 11) ‘상호 얽힘’, ‘정박’, ‘틈새’ 등 현상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현상학적 렌즈로서의 물’, ‘밤의 공간성’, ‘다공성’, ‘발광성’ 등 구체적인 건축화 방법을 발전시켰다.
- 12) Juhani Pallasmaa, *Toward an Architecture of Humility*, London, Academy Editions. 1998, p.5

<표 2> 건축 현상학의 두 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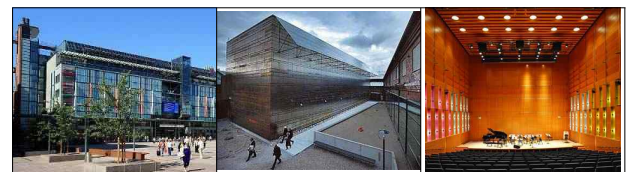
계열	하이데거 계열	메를로-퐁티 계열
이론가	Norberg-schulz(1926-2000) Thomas Thiis-Evensen (1946-)	Juhani Pallasmaa(1936-) Eduard Fehr(1946-)
내용	실존, 공간, 건축(1971), 지니어스 로사이(1980) 하이데거의 거주개념 도입, 세계(건축) 이해의 현상학 주장, 건축의 본질, 의미와 정체성을 위한 장소이론 제시	지각의 의문(1994), 건축과 감각(1995), ‘생각하는 손’(2009), 메를로-퐁티의 몸 개념 도입. 시각적 측면 이외의 건축에서의 다감각적 지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강조.
작가	루이스 칸, MLTW 페터 Zumthor, 안도 타다오	스티븐 홀, 알바루 시자 스베르 펜
건축 성격	건축의 본질, 존재 중시 중심성, 장소성, 지역성 재료의 물성, 구축성, 디테일 강직함, 목직함, 단순함	다감각적 지각에 기반 빛과 색채, 다시점 감성적 디자인 부드러움, 경쾌함, 변화감

3. 팔라스마 건축 현상학의 배경

3.1. 팔라스마의 건축성향

(1) 작품 성향

후아니 팔라스마(Juhani Uolevi Pallasmaa)는 1936년 핀란드에서 태어난 건축가이자 이론가이며 교육자이다. 60-70년대에는 합리주의, 표준화, 공업화 건축에 관심을 보였지만, 근대건축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1980년대 이후 심리학, 문학, 현상학 등을 연구하고 건축의 본질과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북유럽의 고유의 낭만적 건축 성향에 영향을 받았고, 특히 알토 건축에 대한 연구로 건축 현상학에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팔라스마에 따르면, 알토는 장소에 대한 고려, 재료의 성격에 충실한 사용, 구축방법에 대한 관심, 빛의 감성적 사용과 건축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측면에서 현상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북유럽의 지역적 배경과 알토에 대한 연구는 이후 감각을 중시하는 팔라스마 특유의 건축 현상학 형성에 기여했다.



<그림 3> 팔라스마의 캄피 센터, 코룬디 문화센터, 콘서트 홀 내부

팔라스마는 활발한 저술 및 강연 활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낡은 산업시설의 리모델링과 신축 건물을 조화시켜 박물관과 콘서트 홀 등 복합문화시설을 만들어낸 코룬디 문화센터(Korundi Culture Center, 2010), 헬싱키 최대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서 버스 터미널, 지하철, 주차장 및 쇼핑센터와 오피스, 아파트의 복합시설로 구성된 캄피 센터(Kamppi Centetr, 2006), 로바니에미 박물관(Rovaniemi Art Museum) 리노베이션(1986) 등이 있으나, 작품보다는 건축 현상학 관련 저작물로 더 유명하다.

(2) 주요 저작물의 성향

팔라스마는 ‘감정의 기하학적 구조(The Geometry Of Feeling, 1986)’를 통하여 근대 건축의 추상화와 포스트모던 건축의 화장술 모두를 비판하고, 기억과 다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는 자신의 현상학적 입장을 설명한다. 이후 자신의 대표적 저서 ‘감각과 건축(The Eyes of The Skin, 1996)’에서는 시각 중심의 건축을 비판하고 다감각적 체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998년에는 알토 건축을 예로 현상학적 해석을 시도했으며, 2001년에는 영화에 나타난 감각적인 건축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자신의 연구 범위를 넓혔다. 또한 같은 해의 ‘생명의 공간, 체화된 경험, 감각적 사고(Lived Space, Embodied Experience and Sensory Thought, 2001)’에서는 다감각적 사고를 공간 경험과 함께 전개시켰다.

<표 3> 팔라스마의 주요 저서와 내용

년도	제목 및 내용
1986	‘감정의 기하학적 구조(The Geometry Of Feeling, a look at the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근현대 건축 비판, 기억, 다감각적 경험의 중요성 주장
1996	‘감각과 건축(The Eyes Of The Skin, Architecture and the Senses)’ 팔라스마의 건축적 사고를 알린 첫 번째 책으로서, 건축 경험에 있어 감각의 중요성을 다룸. 특히 촉각을 포함한 다감각적 건축을 주장함
1998	‘알바 알토: 종합 기능주의를 향하여(Alvar Aalto: Toward a Synthetic Functionalism)’ 알토 건축은 근대건축의 기능주의를 넘어 현상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
2001	‘이미지의 건축(The Architecture of Image, existential space in cinema)’ 고전 영화 속에 나타난 감각적 상황에 사용된 건축 이미지를 다룸
2001	‘생명의 공간, 체화된 경험, 감각적 사고(Lived Space, embodied experience and sensory thought)’ 체화된 경험으로서의 공간과 다감각적 사고의 필요성 주장
2005	‘조우 1(Encounters 1)’ 건축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본질적 내용 즉, 시간, 소리, 감각, 거주 등에 관한 에세이 모음.
2006	‘군도(Archipelago)’ 팔라스마 교회 기념 헌정 책, Karsten Harries, Dan Hoffman, Steven Holl, Colin St. John Wilson, Daniel Libeskind 참여
2009	‘생각하는 손(The Thinking Hand)’ 경험과 관련 몸 중심 사고와 특히 생각, 작업, 도구로서 촉각의 중심으로서 손의 중요성을 강조
2011	‘체화된 이미지(The Embodied Image)’ 현대문화에 있어서 이미지의 종류와 내용, 시적 이미지와 건축적 이미지를 저명 건축 작품을 대상으로 다룸
2013	‘조우 2(Encounters 2)’ 건축과 현대 문화에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다루고 있음

2006년 발간된 ‘군도(Archipelago)’는 팔라스마 교회 기념 헌정 책으로서 편집자 맥케이스 및 팔라스마와 관련된 23명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 현대 건축에서 현상학적 접근을 피하는 이론가와 건축가들의 면모를 알 수 있다.¹³⁾ 2009년에 출간된 ‘생각하는 손(Thinking Hand)’은 건축 경험에 있어 몸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손을 중심으로 사고와 작업에 있어서 촉각의 중요성을 다룬다. 2011년의 ‘체화된 이미지(Embodied Image)’에서는 건축 이미지를 중심으로 문화 영역까지 그리고, 2013년 ‘조우 2(Encounters 2)’에서는 인류학, 심리학, 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건축과 현대 문화의 관련성을 피력한다. 또한 최근에는 스티븐 홀, 페터 춰토프

13) 주요 인물로 Karsten Harries, Dan Hoffman, Steven Holl, Colin St. John Wilson and Daniel Libeskind 등이 있다.

등 현상학적 건축가들의 책에 서문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건축 현상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3.2. 건축 현상학의 도입 목적

(1) 현대건축의 상품화 비판

팔라스마에 따르면 현대 건축은 세계화되었고 도구화되었으며, 상업화된 특성을 갖는다.¹⁴⁾ 현대 건축에서 세계화에 의한 보편화된 디자인이 성행함에 따라, 특정 장소와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또한 상업화에 의해 건축의 사회적 중요성 역시 거의 망각되고 있다. 더욱이 실무에서의 비용 경쟁, 생산성 강조는 건축을 상품화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제 건축은 공동의 이해와 가치를 고양하는 문화라기보다는 단지, 일종의 투기 상품으로 전락했다.¹⁵⁾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활로를 찾는 경향¹⁶⁾에 대해서도 팔라스마는 비판적인데, 이는 상업성과 오락의 형태로 변할 뿐이라고 평가한다.

팔라스마가 건축 현상학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근대 건축이후 포스트모던 건축을 지나면서 극도로 상업화되고 순간적 즐거움을 쫓는 흐름에 경종을 울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건축 현상학이 근대 건축에 의해 철저히 경시되었던 지역과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자, 포스트모던 건축의 표면적이고 일시적 놀라움이 아니라 건축이 본질이 갖는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2) 현대건축의 과잉 개념화 비판

팔라스마는 현대 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학적 개념에 대한 과도한 강조 역시 비판하는데, 이는 반대급부로 건축의 물리적이고 감각적이며 체화된 본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팔라스마에 의하면, 현대 건축은 아방가르드의 전통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실험성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넓히는 데 더 중심을 두었다. 그 결과, 현대 건축은 실존적 현실을 무시한 채, 스스로를 고립시켜 자율적 담론으로 이끌고, 자폐증에 이르게 한다고 비판한다.¹⁷⁾ 팔라스마가 보기에 이것은 현실 도피이고 인간이 무시된 처사이자 건축 존재에 대한 부정이다. 현대 건축이 보여주는 개념 중시 성향은 실체에 근거한 조형과 공간 경험 대신, 이미지만을 광고하는 홍보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실존적 깊이와

14) Juhani Pallasmaa, Toward a Biophilic Future: Culture and Human Nature, 2001, p.2

15) Juhani Pallasmaa, Toward an Architecture of Humility, London, Academy Editions, 1998, p.4

16)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대도시의 밀집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램 콜하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17)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Wiley, 1996, p.32. 피터 아이젠만의 모든 맥락을 제외시킨 주택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유리된 시각 이미지의 산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지적 개념에 경도되어 망각되고 있는 건축의 경험적, 체화된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건축 현상학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대 건축의 현 상황에 대한 팔라스마의 문제 인식이다.

(3) 건축 본연의 임무 강조

팔라스마는 “건축 현상학이란 건물의 내부 언어를 찾는 것”¹⁸⁾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다른 모든 예술과 같이 건축이 근본적으로 공간과 시간 내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세상과 인간의 존재를 연결시키고 표현”¹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 본연의 임무는 메를로-퐁티가 세간의 회화에 대해 말한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우리와 만나는지를 가시화’하는 것이 된다.²⁰⁾ 이를 위해, 건축은 공간 구축과 거주와 신비하고 시적(poetic)인 배경을 물질화하고 유지시켜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즉, 건축의 궁극적 임무는 ‘세상 속 존재를 구조화하고 체화시켜(embedded) 살아있는 실존적 은유’²¹⁾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극히 현상학적인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물리적 근거가 되는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재료의 물성을 포함한 구축 방법 그리고 결합을 위한 디테일에 능숙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 현상학에서는 건물의 존재에 관여하는 구축, 재료, 디테일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건축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건축 이론, 비평, 교육 등에서 현재 등한시 되는 건축의 문화적 성격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팔라스마는 본질의 건축과 형태의 건축을 구별하여 사용하는데, 형태의 건축이 형태에 대한 강조와 표현 어휘를 통해 관찰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에만 주력하는 반면, 본질의 건축은 인간 존재의 초월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고 대지에 대한 인간의 토대를 강화하려고 시도한다.²²⁾ 이렇듯,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적 문제들은 건축과 직접 연결되므로 이를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건축 본연의 임무가 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팔라스마는 주장한다.

4. 팔라스마 건축 현상학의 특성

4.1. 몸을 통한 건축 경험의 강조

18) Juhani Pallasmaa, The Geometry Of Feeling, a look at the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In: Nesbitt, K.,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1996,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450

19)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Wiley, 1996, p.30

20) Ibid. p.46

21) Ibid. p.71

22) Juhani Pallasmaa, Encounter 1, London, Academy Editions. 2005, p.293

(1) 건축 경험의 필요성

팔라스마의 건축 현상학에 따르면 인간의 실존은 건축에서 구조화되며, 이는 건축 경험을 매개로 한다. 그런데 팔라스마는 현상학이 의식 안에서 작동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므로 건축 현상학에서는 형태, 비례, 양식 분석과는 달리 건축적 감정을 통해, 경험하는 의식으로 건축을 바라본다. 즉, 방향, 위와 아래, 이곳과 저곳, 수평성과 수직성, 빛과 어두움 등 모든 실존적 감정들은 축적된 무의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팔라스마는 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측면이 무의식적으로 유지된다고 믿는다.²³⁾ 그에 의하면 단지 진정한 건축만이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 감정 및 존재적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의 시각 이미지는 관찰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만 진정한 건축 경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건축 경험은 공감과 해석, 즉 문화적 사회적 컨텍스트의 이해와 순간의 유행을 넘어선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²⁴⁾

건축의 경험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것, 만지는 사람과 만져지는 것 간의 개념적 중요성 때문에, 현상학적 건축은 여전히 인간 시각에 대한 건축의 외관에 크게 의존한다.²⁵⁾ 그리고 건축의 경험에서는, ‘공간, 사건 및 시간이 우리의 의식을 관통하는 하나의 차원으로 결합’²⁶⁾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은 우리에게 세상에 거주하고 문화의 지속을 지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²⁷⁾

(2) 건축의 경험과 몸

진정한 건축의 경험은 건물에서 나타나는 구축성과 감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²⁸⁾ 우리는 몸 전체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만지고, 듣고 측정한다. 그리고 경험의 세상은 몸 중심을 주위로 구성되고 명확하게 된다. 몸의 반응은 이러한 함축된 행위 결과로서 건축 경험에서 분리될 수 없는 측면이다. 그런데, 진정한 건축적 경험은 단순히 연속된 시각적 이미지들이 아니라 움직임,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중심에 몸이 위치한다. “우리는 방문하는 모든 도시와 마

23) Juhani Pallasmaa, The Space of Time - Mental Time in Architecture

24) Juhani Pallasmaa, Toward an Architecture of Humility, London, Academy Editions. 1998, p.2

25) Bryan Norwood, Consciousness at the Limits of Phenomenology: rethinking architectural phenomenology with Merleau-Ponty and Deleuze, Kriterion vol.2 Belo Horizonte 2006, p.7

26) Interview with an Architectural Icon: Juhani Pallasmaa By Andrew Caruso, “나는 건축이 인간의 행위와 관계가 보여 지고 이해되는 것에 대한 실존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우리의 주거는...우리 자신의 몸과 존재의 부분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 장소와 순간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이러한 차원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요소들이 된다.”

27)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Wiley, 1996, p.50

28) Juhani Pallasmaa, Encounter 1, Academy Editions. 2005, p.64

을을, 인식해왔던 모든 장소들을 우리 몸에 새겨진 기억으로 수용한다.”²⁹⁾ 그리하여, 공간의 실존적 경험에서 몸과 공간은 통합되고 서로 융합된다.³⁰⁾ 이렇듯 팔라스마의 건축 현상학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건축경험에 있어서 몸의 개입이며 그것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다.³¹⁾ 동사로서 건축을 해석하는 것은, 인지에서 행위와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궁극적으로 다감각적 관계를 강조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움직이는 신체는 정지해있는 신체보다 좀더 개방적이고 여러 감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림 4> 건축경험의 예, 알바루 시자의 미메시스 뮤지엄(좌측, 중앙), 카마르구 뮤지엄(우측), 몸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경사로, 계단 및 등선을 통한 빛, 공간의 경험

4.2. 다감각적 건축 강조

(1) 시각 중심주의 비판

건축은 우리와 세계 간을 조정하는 예술로서 이러한 조정은 감각을 통해 발생한다.³²⁾ 그러나, 팔라스마가 언급하듯,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축은 실존적 진지함과 떨어진 이미지의 산물로 변화하였고, 건물의 실제 경험, 공간과 재료는 무시되었다. 특히 컴퓨터 이미지는 건축을 다감각적 본질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하여, 우리의 공감과 상상력의 힘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팔라스마에 따르면, 투시도법의 발명으로 서구 문화는 시각 중심의 지식, 진리, 현실 해석인 시각 중심의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³³⁾ 메를로-퐁티는 “데카르트 식의 투시도법적 사고 “와 아울러 ”전적으로 세상과 유리된 물역사적이고, 추상적인 주제가 갖는 우월한 지위”를 비판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시각의 헤게모니는 이미지를 무한히 증식시키는 세계로 이끈다. 그 결과 근대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사진이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각 위주의 건축은 체험적, 감각적 건축을 약화시키고,

다시 건축을 이론적이고 지적이며 개념적인 영역으로 이끈다.³⁴⁾ 이러한 경향의 또 다른 문제는 건축의 사회적 현실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건물과 도시의 디자인을 결정하게 만드는 기능적, 경제적, 기술적 현실마저 도외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³⁵⁾ 따라서, 건축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각 중심의 건축을 폐기하고 체험적 건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팔라스마의 주장이다.

(2) 다감각적 건축의 제안

팔라스마는 시각 위주의 건축 대신 ‘다감각적 건축 (Multi-sensory Architecture)’ 개념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건축의 경험은 다감각적으로서...건축은 필수적으로 경험을 통해 세상 내 자체의 존재감을 강화시킨다.”³⁶⁾ 그는 시각에 의해 무시되었던 모든 감각이 자신의 현상학 이해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지각은 시각적 이미지를 공간적, 신체적 경험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이다.”³⁷⁾

예를 들어, 팔라스마는 인간은 소리를 통하여 공간을 측정하고 경계에 대해 일깨우며 크기를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즉, 모든 공간, 방, 건물, 도시는 자체의 소리와 영향을 갖고 있어서³⁸⁾ 건축 경험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냄새 역시 공간을 기억하는데 작용한다. “모든 거주는 자체의 개별적 냄새를 갖는다.”³⁹⁾ 눈으로 지각되는 공간은 일순간이지만, 냄새는 시각적 기억으로부터 지워질지 몰라도, 코는 눈이 기억하도록 돕는다. 팔라스마는 상기한 여러 감각 중에서도 촉각적 경험을 가장 중요시했는데, 왜냐하면 촉각은 신체와 모든 감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⁴⁰⁾ 촉각 매체로서 피부는 사물의 재질, 무게, 밀도, 온도를 읽는다고 팔라스마는 말한다.⁴¹⁾ 더 나아가, 팔라스마는 모든 감각이 촉각의 확장으로서, 그 경험은 접촉의 방식으로 촉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⁴²⁾ ‘사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를 중시하고, 건축의 기본 요소인 수평적 혹은 경계로서의 벽, 바닥, 천장의 구성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통하여 재료, 빛, 색채의 감각적 질과 조인트의 상

29)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Wiley, 1996, p.50

30) “건물은 몸과 관련하여 조우한다; 접근하고, 대면한다. 다른 사물의 조건으로서 사용된다. 건축은 행위와 지각 및 사고를 지시하고 정하며 틀 지운다.” J. Pallasmaa, *Stairways of the Mind*, in *Encounters*, 2005 p.60

31) “건축은 행위와 움직임을 지시하고 틀에 맞춘다. 그러므로 건축적 경험은 행위와 움직임이다. 진정한 건축적 경험은... 건물에 접근하거나 접촉하면서 만들어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의해, 창문자체가 아닌 들여보거나 통해 보는 것에 의해, 시각 대상으로서 벽난로가 아니라 따뜻함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Wiley, 1996, p.45

32) Ibid. p.72

33) Ibid. p.14

34) Juhani Pallasmaa, *Toward an Architecture of Humility*, London, Academy Editions. 1998, p.2

35)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Wiley, 1996,, p.193

36) Ibid. p.28

37) Juhani Pallasmaa, *Encounter 1*, Academy Editions. 2005, p.84

38) “보는 것은 격리시키는 반면 소리는 결합한다. 시야는 방향이 있지만 소리는 모든 방향이다. 보는 감각은 외부를 암시하지만, 소리는 내부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나는 대상을 주시하지만, 소리는 나에게 다가 온다; 눈은 다가가지만 귀는 수용한다. 건물은 우리의 응시에 반응하지 않지만, 우리의 소리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낸다.”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Wiley, 1996, p.34

39) Ibid. p.37

40) Reza Shirazi, Juhani Pallasmaa’s “Fragile Phenomenology”, *Environmental & Architectural Phenomenology*, Vol. 20, No. 2 Spring, 2009, p.5

41) Reza Shirazi, op. cit. p.99

42) Juhani Pallasmaa, *The Eyes of the Skin*, Wiley, 1996, p.10

정적인 촉각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든다.⁴³⁾ 이러한 촉각적 건축의 강조는 명확히 시각 중심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촉각적 감성은 조형성, 물성, 촉각과 친밀함을 나타내어 팔라스마가 주장하는 다감각적 건축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그림 5> 다감각적 건축 사례: 스티븐 홀의 성 이나시오 채플, 물의 반사, 소리, 흔들림, 주출입문의 색채, 재질, 촉감, 내부 벽면의 촉감

5. 결론

건축 현상학은 건축의 경험을 통해 건축의 본질에 접근 하자는 주장으로서, 대표적 건축 현상학자인 팔라스마는 상업화와 표면적 이미지에 경도되고 있는 현대건축의 성향을 비판하고, 개념 위주가 아닌 인간의 실존과 관계된 건축의 본질을 경험과 감각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현상학적 건축관을 제시한다.

팔라스마가 주장하는 건축 현상학의 특성은 장소성을 중심으로 도시 스케일의 접근을 피하는 노베르크-슐츠의 건축 현상학과는 달리 개별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팔라스마의 건축현상학에서는 시각 일변도의 이미지 위주 건축을 비판하고 촉각을 포함하는 이른바 다감각적 건축과 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움직임의 중시하는 다양한 건축 경험을 중요시한다.

팔라스마의 건축 현상학은 개념 과잉의 현대 건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건축의 임무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며, 건축에 대한 본질적 측면의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의 가치 역시 갖는다. 그러나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되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 치중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 건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와 연결된 차원 즉, 철학적 측면의 건축에 대한 사고나 주장이 지금까지 국내 건축의 교육, 이론, 실무에서 얼마만큼 제기되었는가를 고려한다면, 팔라스마가 주장하는 건축 현상학은 획

기적인 동시에 건축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국내 상황에서도 건축을 새롭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Holl, Steven, Pallasmaa, Juhani, Perez-Gomez, Alberto, Questions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William Stout Publishers, 2006
- McKeith, Peter, Archipelago, Rakennustietot, 2006
- Nesbitt, K.,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 Norberg-schulz,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Rizzoli, 1980
- Norwood, Bryan, Consciousness at the Limits of Phenomenology: rethinking architectural phenomenology with Merleau-Ponty and Deleuze, Kriterion vol.2 Belo Horizonte 2006
- Otero-Pailos, Architecture's Historical Turn: Phenomenology and the Rise of Postmodern, Univ. of Minnesota Press, 2010
- Pallasmaa, Juhani, Encounters 1, Rakennustieto, 2009
- Pallasmaa, Juhani, Encounters 2, Rakennustieto, 2012
- Pallasmaa, Juhani, ed. Alvar Aalto, Villa Mairea. Alvar Aalto Foundation, 1998
- Pallasmaa, Juhani. The Architecture of Image, existential space in cinema, Helsinki, Building Information Ltd. 2001
- Pallasmaa, Juhani, The Eyes of the Skin, Wiley, 1996
- Pallasmaa, Juhani, The Thinking Hand, Wiley, 2009
- Pallasmaa, Juhani, The Embedded Image, Wiley, 2011
- Reed, p, Ed. Alvar Aalto, Between Humanism and Materialism, The Museum of Modern Art, 1998
- Shirazi, Reza, Architectural Theory and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Phenomenology, Brandenburgischen Technischen Universität, 2009
- Shirazi, Reza, Juhani Pallasmaa's "Fragile Phenomenology", Environmental & Architectural Phenomenology, Vol. 20, No. 2 Spring, 2009
- Shirazi, Reza, Towards an Articulated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e, Routledge, 2014

[논문접수 : 2015. 02. 27]

[1차 심사 : 2015. 03. 16]

[2차 심사 : 2015. 03. 20]

[게재확정 : 2015. 04. 03]

43) Nesbitt, op. cit., pp.14-30